

# 호남권 원로들 “비례연합정당 통해 총선 승리를”

2024 총선 호남 비상시국선언  
원로·시민사회 대표 26명 참여  
정치적 연합체 비례정당 제안  
“세력 단결로 윤 정부 심판해야”

호남권 원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 승리를 위한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원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30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2024 총선 호남 비상시국선언’ 1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비례연합정당’ 건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정영일 동강대 교수, 이철우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현덕 전 호남제주 YMCA 협의회 회장, 황민주 6·18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명예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하에 민주주의가 파괴 당하고 민생 마저 짓밟히고 있다”며



이철우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김현덕 전 호남제주 YMCA 협의회장 등 광주·전남·전북 원로 시민·사회대표단들이 3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2024 총선 호남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항쟁 성과 또한 사라진 지 오래다”며 “독립운동 영웅을 모욕하고 동상을 철거하는 등 6월 항쟁 이전인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엑스포 유치 실패는) 나라망신이 아닐 수 없다. 세계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조차 모르는 정권이다”며 “미국과 일본에만 기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언

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권력욕에만 눈이 멀어 언론 장악, 노동 탄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연장’에만 혈안돼 민중의 삶, 인권 등한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대해서는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며 민주당에 ‘선거법 개혁

금지’, ‘비례위성정당 구성 금지’, ‘호남에 기득권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원로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라면 선거법을 개악해서는 안되며, 거대 제1야당답게 비례 의석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수도권 지경국에서 승부를 봐야한다”며 “호남 정치의 발전을 위해 기득권을 양보하고, 지난 50년 동안 호남권에서 보낸 일방적 지지에 대해 보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로들은 “윤 정권 심판을 위해 지난 2016·2017년 촛불항쟁처럼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전국 운동 조직과 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연합체인 비례정당을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시민·개혁·민주·진보 세력이 총단결해 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호남에서 기득권을 양보해 호남사람들이 보낸 일방적 지지에 보답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eunj.kim@jnilbo.com

## 콘텐츠 선도기업, 광주 스타트업 지원

市,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설명회

문화콘텐츠 선도기업들이 광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광주시는 30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선도기업 및 초기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업설명회’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밋업)를 개최했다.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은 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디어를 외부 조달로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초기기업 대상으로 콘텐츠 선도기업의 기술·서비스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광주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에서 후원했다. 미국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네이비웍스 자회사 (주)Studio N, 유·아동 대상 에듀테인먼트 기업 (주)단꿈아이 등 3개 선도기업 관계자와 지역 기업 약 50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 초기기업 사업설명, 선도기업 발제, 1대 1 비즈니스 밋업,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초기기업 6개소가 콘텐츠 분야 협업과제 제안을 위한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각 선도기업 관계자들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웹툰·에듀테인먼트 분야 성공전략을 공유하는 초기 콘텐츠사자 간 상생과 협업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광주시는 콘텐츠 분야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업과제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선도기업과 지역 수요기업 간 협업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 김영록 도지사 ‘COP33’ 유치 행보 본격화

두바이서 탄소중립정책 소개  
정부 차원 유치지지 등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33차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협력연대 강화를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를 대표로 한 전남도 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개막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한 김효은 교체수석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33차 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유치 지지 및 개최도시 선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의 프랭크 코우니 세계회장을 만나 전남도 탄소중립 정책 등 기후위기 대책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 관계망 형성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프랭크 코우니 세계회장은 이클레이가 탄소중립과 파리협약 이행 등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방정부로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어 1일 28차 총회 블루존 이클레이관에서 ‘연안지역의탄소중립전략’이란 주제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계속되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앞에 탄소중립 정책 실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각국 지방정부들과 연대협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해외 지방정부 단체장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연안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전남도가 해양자원 기능 회복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COP28 참관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의 모멘텀이 될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 도시와 강화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2023 . 12 . 08  
Fri 19 : 30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주최  
Jindo, 정선군, 밀양

주관  
arirang 아리랑국제방송 全南日報